

# 이재명 출마선언, 민주 당권경쟁 본격 개막

97그룹·김민석 등 도전장

단일화 가능성·박지현 변수

최고위원 '친명 대 비명' 전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레이스가 유력 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의 17일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 개막했다.

이 고문은 이틀 간의 후보등록 일 중 첫날인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8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식 선언했다.

반대편에서는 이 고문에 맞서 세대 교체론을 내세운 '재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에 속하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등 이른바 '양강양박' 의원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면서 이들의 선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유력 대선주자인 이 고문의 압승을 예측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미 지난 대선을 거치며 당내 의원들 다수 및 권리당원 다수가 이 고문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이재명계' 성향이 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달 28일 3명의 최종후보를 남기고 컷오프(탈락) 시키는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투표만 100% 반영하던 기존 룰을 권리당원 투표 30%를 반영하는 룰로 변경한 것도 이 고문에게는 호재다.

이른바 '개팔' 등으로 불리는 강성 권리당원 지지층을 보유한 이 고문이 예비경선 단계서부터 압도적인 세를 보여주며 대세론을 굳힐 기반

이 마련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반전 내지 이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세대 교체론을 앞세운 '양강양박' 의원들이 얼마나 지지를 끌어모을지에 따라 전당대회 흐름이 바뀔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이 고문에 맞설 카드로 과감한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어대명' 구도를 깨기 위한 비이재명 진영의 여론전도 이어지고 있다.

97그룹 의원들은 이 고문의 대선패배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이 고문의 '사법 리스크'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컷오프 이후 이 후보를 제외한 다른 두 명의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의원의 '선전'을 접치는 이들도 있다.

전반적인 전대 구도가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짜이긴 했지만 김 의원의 잠재력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지현 전 위원장의 거취도 눈여겨봐야 한다. 당의 출마 불허 결정에도 출마를 강행한 박 위원장의 경우 접수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1차 컷오프 관문에서 8명으로 압축한 뒤 최종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친이재명) 대 비명(비이재명)' 간 전선이 선명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친명계에서는 재선의 박찬대 의원이 이 고문의 '러닝메이트' 임을 자처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비명계에서는 재선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이낙연계 초선 윤영찬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조진 고민정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례하는 여야 지도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부터)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의장 지핀 개헌론, 추진 동력 미지수

국힘 "국정 동력 상실" 일축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그러나 개헌은 정치권에서 흔히 '이슈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난제인데다, 즉각적인 여야의 반응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

를 열자"며 "이제는 실천에 나설 때"라고 개헌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닌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헌의 시기·방법·범위 등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를 향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단칼에 거부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의 말처럼 개헌이 사회·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설 경우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는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기인데,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빨려들어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사적채용-어민복송 같이 국정조사"

우상호 비대위원장 역제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장관 딸 문제를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역구 선관위원의 아들 우모씨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진 논란을 언급하며 "이는 윤석열표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아빠 찬스가 수많은 청년의 박탈감을 불러온 상황을 활용해 대통령이 된 본인 데, 자신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부정

하는 행위"라며 "우씨는 윤 대통령과 권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청와대(대통령실)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다. 권 대표도 자신이 '뭇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9급이고 임금이 낮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발상에도 매우 놀랐다"며 "대통령실 근무 경험은 공천 경쟁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자리라는 것을 다 알지 않느냐"고 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직권 채용과 대통령 부부 지인들의 연이은 윤석열 등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마침 국민의힘이 탈북 어민의 복송 문제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렇다면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역제안했다. /연합뉴스

## 기재부·행안부, 12월 세종청사 입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7일 오는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할 중앙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다부처 연계성, 민원 처리량, 임차비용 절감 및 세종청사 재배치에 따른 행정 효율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다부처 연계성이 높은 기획재정부와 정부세종청사 17동과 민간 임차 건물에 분산된 행안부가 중앙동 입주 기관으로 최종 결정됐다.

오는 10월 말 중앙동 건립공사가 완료되면 입주 기관별 내부 칸막이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12월 말 입주할 예정이며, 근무 인원은 2개 기관 약 2,800명이다.

두 기관이 지금 사용 중인 사무 공간은 세종청사 입주 기관의 부족 면적 해소와 임차청사 사용기관의 세종청사 입주를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따른 기존 세종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부지 4만㎡ 땅에 연면적 13만4,000㎡ 규모로 완공될 중앙동은 보안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업무동과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민원동으로 분리될 예정이다.

공사는 총사업비 3,452억원이 투입돼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0개월간 이뤄진다. 18일 기준 공정률은 91.3%다. /연합뉴스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